

## 한국은 대학교수의 천국(?)

최원식

인하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보**도에 의하면, 정부와 신한국당은 7월 8일 서울대를 세계적인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악캠퍼스의 지방 이전을 결정하고, 또한 연세대와 고려대 등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학들의 지방 이전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경향신문』, 1997. 7. 9). 그동안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 같았던 ‘대학 개혁’의 구호가 뭔가 실질적인 걸음을 딛는 신호탄인가? 물론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명문대들의 캠퍼스 지방 이전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통의 하나인 서울 편중을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는 고식적이다. 과문한 탓인지, 외국의 우수한 대학들이 캠퍼스 지방 이전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소식을 거의 들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도 관악캠퍼스가 일종의 지방 이전이었던 셈인데, 그렇다고 서울대의 국제적 위상이 이전 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고 인정하기는 힘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문제의 핵심은 외형적인 이전 여부가 아니라 나라 안팎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대학 개혁의 총체적인 구상과 그 실천 의지에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 대학의 현실은 어떠한가? 대학교육의 양적인 성장은 놀랄 만큼 이루어져서 이제는 대학생이 흘러넘친다. 그럼에도 이러한 추세는 좀체 둔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어떤 점에서는 이와 같은 대학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가 거꾸로 대학 개혁을 가로막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조금 야하게 이야기한다면 소비자가 과잉으로 존재하니까 공급자는 품질이니 서비스니 하는 문제는 접어둔 채 손님 받을 궁리만 한다고 할까? 그렇다고 내가 대학교육의 대중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대학 엘리트주의에 서서 더 큰 배움에 대한 대중적 욕구를 제한하고자 하는 기도들은 이미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이다.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이 능력과 희망에 따라 질 높은 대학교육을 향유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

국민의 힘이요 나라 전체의 힘으로 전화될 것은 불을 보듯 환한 일이다. 이 점에서 대학교육에 대한 전 국민적 요구에 내실 있는 대중화로 부응하지 못한 대학인의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이 문제는 정부, 대학, 국민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하지만, 교육 개방을 앞두고 한국 대학의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학이 능동적으로 앞장을 서지 않으면 아니 된다. 우리는 작금에 해외유학생의 급증을 목격하고 있다. 그 원인은 우리나라 교육 전반의 모순에 말미암는 것이지만, 대학도 그 책임의 일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민족의 두뇌를 우리 손으로 키우지 못할 때, 더구나 교육 개방으로 국내에서의 해외유학까지 횡행하게 된다면, 가뜰이나 해외송배가 강한 우리 사회에 신평 사대주의가 다시금 만연하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한국 대학의 맹성(猛省)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대학 구성원 모두, 각각 자기 위치에서 갱신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겠지만, 특히 대학교수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 나는 대학의 핵은 교수라고 믿는다. 진리를 매개로 결합한 학문공동체, 민족의 두뇌를 키우는 교육공동체라는 대학의 본디자리를 상고할 때, 대학교수의 중요한 위치가 더욱 두드러지는 것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교육계의 금언을 빌지 않더라도, 우수한 교수 요원의 확보야말로 대학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 사항이다.

흔히 한국은 대학교수들의 천국이라고 한다. 사회적 존경심, 비교적 높은 생활수준의 보장, 직업의 안정성 등 어느 모로 보나, 물론 아직도 지난 독재시대에 정치적으로 악용되었던 교수제임용제의 억울한 희생자들이 그치지 않고 있지만, 외국교수들보다 낫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교수들의 천국이라는 평판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학들의 학문적·교육적 수준이 그에 정비례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나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건대 대학 들어가서 최소한 학문적으로도 존경할 만한 교수들이 많지 않다는 데 크게 실망한 바 있다. 과연 오늘날 대학생들은 어떨까? 두렵다. 대학 개혁의 지지부진함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반구저기(反求諸己)의 정신으로 돌아가 나로부터 시작하자. 우리 모두 뼈를 짚는 갱신의 노력으로 대학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결단의 때가 박두하였다. ■

---

최원식/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인하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창작과 비평사 주간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민족문학의 논리』, 『韓國의民族文學論』, 『한국근대소설사론』 등이 있다.